

담양군,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전문 해설사 양성

농업유산지역 주민 26명 참여 주 8시간씩 13회차 이뤄져 가치·생태와 문화·해설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

담양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담양 대나무밭의 가치를 알리는 전문 해설사를 양성했다. 담양군은 2020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담양 대나무밭이 등재된 이후 전문 해설사를 양성하고자 담양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농업유산지역 주민 등 26명이 참여

해 지난 1월 2일부터 주 8시간씩 13회 차에 걸쳐 이뤄졌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가치와 대나무밭의 생태와 문화, 해설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으로 해설 역량을 높였다. 교육 참가자는 “앞으로 관광객에게 깊이 있는 정보로 담양 대나무밭의 가치를 알리겠다”

며 “지켜나가기 할 소중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인 대나무밭의 보전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준 높은 해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대나무밭농업유산 해설 요청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061-380-0193)로 예약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시, 올 상반기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전문가·시민단체 참여 ‘악취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나주시가 365일·24시간 공백 없는 민선 8기 ‘악취관리 체계’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악취관리 컨트롤타워인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올 상반기 완료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중·장기 저감 시책 발굴,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악취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관리 통합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주 17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강영구 부시장 주재로 악취대책위원회 위촉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강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전담부서·팀인 환경관리과·악취개선팀을 비롯해 시의원, 대학교, 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악취 방지 저감 시책 발굴, 주민 참여형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심의,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수렴 역할을 한다. 시는 대책위 자문·논의 사항을 악취 문제 해결 관련 정책, 교육, 설명회 개최 등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구 부시장은 “악취배출농가·시설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더불어 올 상반기 악취관제센터 구축으로 24

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이동경로 파악, 악취 포집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취 문제는 민선 8기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0대 과제이자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3대 행복 전략 사업 중 하나다. 나주시는 돼지(2위)를 제외한 한·육우, 젓소, 닭·오리 등 가축 사육 두수 1위인 전라남도 최대 축산지다. 지역 악취 민원은 2015년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이후 도심과 지척에 위치한 퇴비사업장, 일부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복합 악취에 기인해왔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도시 악취 주요인으로 꼽혀왔던 호혜원 축산단지 농가 42곳 폐업과 123곳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 주변 3km내 봉황면 일대 축사 및 퇴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악취가 풍향, 기압, 기온 등 계절적 요인으로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통합관제센터는 광주·전남지역 최초 구축 사례로 도비 5억원을 포함, 사업비 총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시청사 3층 전신교육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몸도 마음도 쑥쑥 건강교실’ 큰 호응

화순군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몸도 마음도 쑥쑥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신청을 받

아 4개소 74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다. 이번 건강교실 프로그램은 △키, 몸무게 측정 △성장이론교육 △성장마사지 △성장점 △영양교육 △신체활동 등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들에게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건강교실을 통해 아동들이 올바른 건강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분기 정기회의 개최

2023년 특화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주요 현안사항 논의

곡성군 옥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월 15일 급년도 새롭게 구성된 16명의 위원을 모시고 옥과면사무소 설산마루에서 새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신규위원 위촉식과 더불어 23년 특화사업인 ‘저소득층 가구 LED 전등 교체 지원 사업’과 ‘행복나눔 꾸러미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존의 사업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저소득층 가구 LED 전등 교체 지원 사업’은 최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정되

었으며, 노후된 전등을 고효율의 LED등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행복나눔 꾸러미 사업’은 옥과면에서 2020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에 따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안건으로는 2022년에 진행한 ‘취약계층 목욕 쿠폰 사업’의 아쉬운 점과 향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쿠폰의 분실률 및 대상 가구의 낮은 이용률 등이 아쉬운 점으로 제

기되었지만, 이용 가구의 높은 만족도로 보아 추가로 목욕 쿠폰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정했다. 주경수 민간 위원장은 “새롭게 개편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민간자원의 협력을 더욱 확장 시켜 2023년에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옥과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공 위원장인 한상용 옥과면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부분 해제 알림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 수요 증가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의 전면 통행 제한을 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겨울철 도로의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L=14km 구간을

전면 통제했으나, 최근 기후 변화 및 겨울철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2월 15일부터 부분 해제를 시행한다. 부분 해제 구간은 천은사 주차장 입구에서 시암재휴게소까지 8km이며, 시암재휴게소에서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구간 6km는 통행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도로 특성상 높은 곳에 있어 폭설 등 위험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순호 군수는 “매주 점검을 통해 통행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